

“예수님의 마음을 지키는
시동감리교회”



시동교회 선교편지

할렐루야!

강원도 홍천군 시동마을 시동교회 담임전도사 김성민입니다.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 19라는 힘든 나날들을 견디고 버려내고 계시면서도 저희 시동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하여 기도와 사랑으로 힘을 더하여 주시는 영등포중앙교회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교회 전경



시동교회 예배당

시동교회는

시동교회는 1955년도에 초대 담임목사 故 고용봉 감독님의 설립으로 시작하여 시동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섬기며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시동교회가 위치한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4리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마을 인구는 100여 가구가 모여 살고 있으나 대다수가 노인세대를 이루고 있으므로 지역사회에 맞는 목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기도로 힘을 더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능원주

시동교회에는 현재 두 분의 성도님과 함께 행복한 목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복음 전도를 위해 지역사회로 스며들어 가고자 세운 계획들을
 시행하기에는 제약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냥 손 놓고 앉아 있을 수가 없었기에 이장님과 교제하며 마을의 사정을
 듣고 할 일을 찾고 있습니다.
 두 분의 귀한 성도님을 수시로 심방하여 말벗이 되어 드리고, 두 분의 일상에
 손발이 되어 드리며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1.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동교회 되길.
2. 새로운 영혼을 보내 주셔서 믿는 자의 수가 더 하여지길.
3. 예배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치유가 있는 시동교회 되길.
4.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길.
5. 담임전도사에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길.



교회 단체사진